불자 세상보기

'무너지는 교권' 피해자는 국민

땅에 떨어진 師道…가정교육 실종이 주범

교사-학부모-학생 상호존중 신뢰회복해야

지난달 30일 동두천 중앙중학교 2학년 박모군이 철길을 걷다 열차사고로 숨지자 박군의 담임 김주용 선생은 마치 이 일이 자신의 책임인양 괴로워하다가 지난 15일 새벽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울산제일여고 3학년 김모양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17명의 학생은 선생님들의 '비밀 장학금'을 받고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 울산에서만 7개 학교에서 이같은 교사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숨은 제자사랑은 교사가 단순한 지식·기능의 전수자가 아니라, 인생에 깊은 시사와 감화를 줄 수 있는 '참인간'의 육성자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최근의 잇단 교권 침해 사건은 교사와 학생-학부모간에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스승에 대한 믿음의 산물인 인간교육이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참선교육'은 사제지간이 하나되게 한다. 사진은 김재영 前 동덕여고 교사의 참선 지도장면.

체벌이나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학생으로부터 체벌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업중인 교사를 연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올들어 이같은 사례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들어 접수된 각종 교권침해 사례는 ▲부당징계, 사직강요 등 신분피해 30건 ▲학교안전사고 피해 20건 ▲폭행피해 12건 ▲명예훼손 12건 등 모두 70건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34건에 비해 2배이상 늘었다는 것. 특히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행피해와 체벌 등에 대해 관련기관에 고소 또는 제보,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명예훼손 사건은 작년 각 2건에 비해 5배나 급증했다.

교육부와 교총,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등은 이와 관련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질 때 교육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상호존중과 사랑으로 신뢰를 회복해 교권 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벌금지'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학생들이 이전에 볼수 없는 거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다 연초부터 시작된 촌지파동과 각종 교육개혁 조치 등으로 인해 교단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면서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현실이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들이 인성 교육을 포기한 데 있다. 선생이 들지 못하는 매를 대신 들어야 할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포기한 것이다. 모두가 내 아이 기죽이지 않으려 기를 쓸 뿐 남에게 갖추어야 할 기본적 예의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교육전문가들은 "교과 위주의 학교교육을 전인교육으로 개편하고 가정교육을 강화하며, 폭력문화를 없애나가는 것이 교권 회복의 한 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 만들어 달라고 회초리를 선물하는 학부모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는 학생, 교사 스스로 참된 교육자상을 확립하려는 노력과 청소년들을 '된사람'으로 키우려는 사회전체의 공동노력이 있을 때 참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스승을 존경하고 봉양하라"

"제자는 스승 있는 곳에서 거친 말을 하지 못하며, 스승의 꾸짖음에 대꾸해서는 안되며, 스승의 상석을 먼저 닦아서 먼지나 개미 따위가 없게 해야 하며, 스승에게 자주 가서 필요한 것을 물어야 한다."(선공경경) 선생에게 대드는 학생,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모들이 되새겨야 할 법문이다.

"스승 공경하기를 부처님 공경하듯 해야 한다"(무진의보살경)는 가르침대로 "제자는 마땅히 다섯가지 일로 스승을 바르게 존경하고 바르게 봉양해야 한다. 모르는 점은 반드시 밝혀서 질문하며,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일을 반드시 민첩히 처리하며, 그릇된 행위가 반드시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해야 한다."(선생자경)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중십경)

친환경농가에 보조금 지급

농림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환경규제지역에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ha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20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규제지역을 중심으로 1단계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시행되는 농지는 1만572ha로 국내 전체 농경지 면적 1백92만4천ha의 0.55%를 차지한다.

보조금은 일반농업과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생산되는 농산물 소득 차액만큼 산정됐으며,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면적에 비례해 전액 국고에서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구성해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작목의 특성이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작목반 등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700 폰팅서비스 금지

정보통신부는 700 전화정보서비스 가운데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가 불건전한 폰팅으로 변질 되고 있다고 판단, 내년 1월1일부터 신규사업자에 대해 700번을 통해 나이와 성별,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지시킨다고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성(性)과 관련된 정보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보는 관련협회에서 보완조치한 뒤 다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마약팔면 최고 사형

법무부·복지부, '마약류 관리법' 국회 제출

성장기 청소년들의 마약류 복용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심각히 저해하고, 환각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투약하는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류 판매사범의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통과되는 대로 내년 7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등 마약류를 판매 또는 조제하거나 투약시킬 경우 현행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호르몬 예방법

"플라스틱 멀리하라"

"어린이에게는 플라스틱 대신 천연 소재의 장난감을 주세요."

국립독성연구소 박귀례 박사는 최근 출간된 〈소비자를 위한 식품 의약품 정보〉 겨울호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가능한 한 먹이사슬에서 낮은 단계(동물보다는 식물쪽)에 있는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유했다.

또 ▲전자 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플라스틱 대신 사기나 금속용기에 담아 넣고 ▲강력 세척제를 사용하지 말며 ▲치과 치료때 아말감 충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유했다.

샴푸는 저독성·항균성 제품을 사용하고 살충제가 뿌려지게 마련인 골프장에서는 입에 손이나 골프공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창문에 PVC로 된 블라인드를 가급적 설치하지 말도록 했다.

송년칼럼

궂은 일은 강물에

유익서
〈소설가〉

강물은 잠시도 쉬지않고 흘러간다. 시간도 그와 같다. 강물은 무엇이라도 아래로 아래로 흘려보낸다. 시간의 강물도 그와 같아서 아무리 잔혹하고 처참한 일도 쉬지않고 흘려보낸다. 계절의 변화는 물론 생명가진 것의 나고 죽는 순환의 철칙을 반복하며 흐르는 시간의 강물은 사람이 짓는 어떠한 일도 쉬지않고 흘려보내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조계종 사태도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마침내 불퇴전의 신심이 정법을 받들고 현현하여 종단질서는 회복되고 승가의 화합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사태가 교계 자체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진압되는 불행을 당하였다. 교계내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상처만 크게 남은 것이다. 텔리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아수라장의 총무원 청사와 일부 스님들의 자해공갈단같은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꼭 이래야만 했던가.

> "참스님의 손길 절실히 요구 본분사 전심전력 중생제도 해야"

조계종 사태로 인해 불교의 위신은 실추될 대로 실추되었다. 불교복지재단이나 자선기관에는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고, 서점의 불교관계 책 판매까지 격감하였다 한다. 부도를 맞은 이, 직장을 잃은 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노숙자 등 온 국민이 IMF 고통을 호되게 겪고 있다. 이렇듯 온국민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참스님'의 따뜻한 구제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겠는가. 국민들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나누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스님들을 누가 '승보'로서 우러러 보겠는가.

권력의 폐불훼석만이 법난이 아닐 것이다. 내부의 다툼 또한 법난에 다름 아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혹독했다는 북주 무제의 폐불훼석의 법난을 맞아 종남산 정애스님은 오로지 위법망구의 일념으로 자기 살을 베어내고 심장을 꺼내 불법의 그침이 없기를 외쳤다. 억불숭유 정책을 펼친 조선조 초 마하연의 석하스님은 법멸진일 유통교해의 일념으로 10년간 혀의 피를 내 화엄경 80권의 혈경을 이루어 보시하였다 한다. 그런 법난에는 미치지 못한 자중지란이라할지라도 종단을 바로잡고자 위법망구의 일념으로 자기를 희생하려는 '참스님'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

일찍이 만해선사께서는 〈불교유신론〉에서 스님들의 여러 한심한 작태들의 사례를 들어 논하였다. 얼굴에는 항상 일을 근심하는 기색을 나타내고 입으로는 시대를 걱정하는 말을 달고 다니면서도 정작 일을 하자고 하면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비열한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조계종 사태도 바로 그런 스님들 때문에 오래 끌며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눈총을 받지 않았는가.

일제초기, 이회광스님과 치열하게 종권 다툼을 벌이며 일본 불교와 야합하려던 용주사 강대련 스님을 불교계의 대악마로 지정하고 그의 등에다 북을 지워 종로통을 행진하게 한 불교유신회 젊은 스님들을 알고 있다. 이번 조계종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명고축출 벌을 주면 어떨까. 그러나 어찌 처벌만이 능사겠는가. 가슴을 넓게 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어 포용하여 종단의 화합과 질서회복을 위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다.

이제 한해를 보내는 시간적 매듭을 힘차게 맺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할 때다. 궂은 일은 다 지난 해의 강물에 띄워보내고, 총무원과 본사 주지들이, 문중과 문중의 어른들이, 영 호남 사찰의 대표들이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짜내 문제를 해결하자. 새해에는 사부대중들 모두가 지난 어느해보다 수행과 교화의 본분사에 전심전력하여 교계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불교의 신뢰회복을 위해 일념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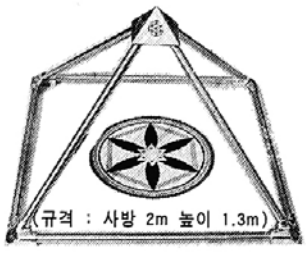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

수정 피라밋 히란야!



재질순동 천연 수정. 히란야 10개 부착, 대형코팅 히란야 및 고급 기에너지 발생 테이프 증정~!

* 피라밋 히란야 「의료용 '氣' 발생기구」: 특허청 의장 특허등록 NO. 204454, 223495, 227171, 227172, 227173

◆ 피라밋과 히란야 사용시 원인불명의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치매예방 및 호전이 가능하고 체질이 급격히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창원지원: 0551)268-5338, 부산동호회: 051)517-0236

卍 天下大道 육신통(육경신) 대용맹정진 정진대법회 卍

心力通天大道 육신통. 안,이,비,설,신,의에 입문하여 천안통,천이통,타심통,숙명통,신족통,루진통을 성취하여 저허공에 달린 대천세계신령스러운 태양의 天氣를 참마음을 가진 입문자들에게 신선,도인,선사,성현의 경지를 닦은 선덕미묘법으로 천백억화신,유,불,선,도의 힘을 얻어 생애의 죄업과 인류의 영혼과 지옥의 영가해탈법과 천지만물 도통법을 얻는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여다! 특히 경신일에는 각종병마와 혼미해진 정신과 잡신에 끄달리는 신병과 신출괴몰한 비법은 귀신도 알지 못하며 이기도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지도자는 물론 한가지 소원과 수준높은 道를 通하여 재벌과 명예는 못되드라도 德높은 道人에 입문하여 만인의 스승이 되여 중생구제와 도덕성 회복하는 道人이 되시며 자아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강의 : 예단경 직강
예단경은 천지만물이 태어나서 죽어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경을 태일법사가 직강

●입 재 : 99년 양 1월 7일 (음 12.20) 해시
●해 제 : 99년 양 1월 8일 (음 12.21) 해시
●회 비 : 1박 2일 침식제공, 편한 옷차림, 5만원.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 모자원고개하차)
(주)02-821-6622 / (야)02-923-3110
016-239-3110
度皇宮 달마심기선무기공회
대한불교 달마선원
천하대도 육신경 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북한산 줄기

상운사 골짜기
千年의 푸르름
하늘을 이고 가는데

솔나무 한그루 위로
백로 한가로히 춤추며
백운대 峰 아래 큰바위

물길을 열고 흐르는 듯
그 자리 자취 장관이로다

흐르는 물줄기 작은 연못
송사리 떼 노닐며
상운사 대웅전 뜨락 아래

피빛으로 물든 동백나무
관음보살의 미소로
삶의 고뇌 녹일 때

구름도 비켜가고
초겨울 바람
살갗 스친다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주·야 (02)634-4910